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2주일(하느님의 자비주일)
제32권 21호(나해) 2012·4·15

[묵상]

토마스의 불신<카라바조 작, 17c>

"평화가 너희와 함께!"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화와 행복은
보고, 따지는 데 있지 않고
믿고, 사랑하는데 있음을.

당신께서
토마스에게 나타나신 건
당신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당신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임을
깨닫게 하소서.

저희가 할 일은
이성을 움직여
이리저리 따지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여
당신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의 행위에 동참하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소서.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수 요 일	저 녁 미 사	오후	7:30
목 요 일	저 녁 미 사	오후	7:30
금 요 일	저녁미 사(사순시기)	오후	7:30
토 요 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오전	8:30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후	7:00
주 일	아 침 미 사	오전	7:30
	학생미사(영어)	오전	9:30
	낮 미사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 요 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오후 2:00
	성경공부(그룹반)	오전 10:00
	레지오 마리애	오후 8:00
	예비자 교리반	오후 8:00
목 요 일	성 시 간 (첫목요일)	저녁 미사후
	레지오 마리애	오전 10:00
	병자영성체(1째주)	오전 10:00
	성령기도회	오후 8:00
	울뜨레아(4째주)	오후 8:00
금 요 일	성경공부(그룹반)	오전 9:30
	M.E. Sharing(3째주)	오후 7:00
토 요 일	유아세례(짝수달 4째토요일)	오후 6:00
	레지오 마리애	오후 5:30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주 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애	오전 중
	아도라떼 성가대	오전 8:30
	글로리아 성가대	오전 9:00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00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모임의 날 •빈첸시오회	오전 9:00
	• 요셉회 • 제대회	오후 1:00
	-행사의 날	
	4째주 -사목회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밥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 무 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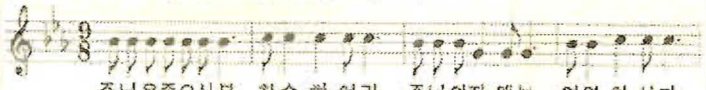
미사지향

토 요 특전미사	(연)이호순 프란체스카, 권순봉 요안나, 정희용, 이세림
	(생)
주 일 낮 미사	(연)이호순 프란체스카, 오진 베드로, 임익찬 안토니오, 이상일 요셉,박영춘 안토니오, 고준희 제임스, 이덕철 루카, 김명숙 요안나, 윤춘의 스콜라스티카, 신태동 요아킴, 김종환 야고보, 박준구 요한, 이송림 요셉 & 이석은 마리아
	(생)이행자 리드비나 & 이근모 마리노, 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글라라, 송마이클 & 송미카엘라, 권안나 & 전복례 데레사 가정, 신대철 알베르또, 한장환 안토니오, 정학순 발바라, 김명 스텔라, 이혜숙 요셉피나, 한장치 데레사, 주용범 아브라함, 김원영 알로이시오, 임연조 바오로, 토런스 북구역가정들 , 민석준 토마스 & 민영준 마르코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cts of Apostles) 4,32-35

화답송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주님은 나를 벌하고 벌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는 않으셨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제 2독서 요한 1서(1 St. John) 5,1-6

복 음 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 음 요한(St. John) 20,19-31

영성체송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166	166	167
봉헌	256	256	194
성체	287	287	280
파견	169	167	162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교회 안의 성경 해석학

교회, 성경 해석학의 본래적 장소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라고 여겼던 달마티아의 위대한 학자(예로니모 성인 - 역자 주)는, 성경 해석에서 교회성은 외부로부터 부과되는 요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책은 바로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이며, 오직 이 백성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말하자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주파수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로니모는 어떤 사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전한 교의에 따라 권고하고 그 교의에 반대하는 이들을 논박할 수 있도록, 당신이 배운 전통적 교의에 확고하게 머무르십시오."

신앙을 고려하지 않는 성경 접근들이 본문의 구조와 그 형태들에 대하여 흥미로운 요소들을 제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어쩔 수 없이 예비적이며 구조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상, 교황청 성서위원회에서 현대 해석학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원칙을 반향하며 말하는 대로, "성경 본문의 올바른 이해는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유사한 체험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허락됩니다."

이 모든 것은, 영성 생활과 성경 해석학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독자가 성령의 생명으로 성숙해 감에 따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실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그만큼 커지게 마련이다." 강하고 진정한 교회적 체험은 하느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신앙의 이해를 길러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신앙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교회 생활 자체를 성장시킵니다. 여기에서, "하느님 말씀은 독자와 함께 성장한다."는 대 그레고리오 성인의 유명한 격언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신앙 안에서 걸어가는 모든 이들과의 교회적 친교를 자라나게 합니다.

"신학의 영혼"

31). "성경 연구는 신학의 영혼과도 같은 것이어야 한다."
계시헌장「하느님의 말씀」의 이 구절은 근래에 점점 더 친숙해졌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성경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보여 주는 상징으로서 자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제12차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정기 총회에서도, 성경 본문에 대한 역사적 연구와 신앙의 해석학 사이의 관계를 말하기 위하여이 유명한 표현을 자주 언급하였습니다. <◆계속>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토마스 사도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무척이나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단순히 부러움 때문에, 자존심을 지키려고 부활에 대해 의심을 보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활의 문제는 생사의 문제였고, 토마스 사도는 남들의 이야기만 듣고 부화뇌동하지 않는, 자기체험 없이는 어느 것도 믿으려 하지 않는 신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고맙게도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손발에 뚫린 못 구멍을 보여주십니다.

그 결과 토마스 사도는 남들에게 얻어들은 주님이 아닌,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 아주 열성적인 전교를 하게 됩니다. 그는 의심을 통해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의 신앙은 의심없는 맹신은 아닙니까? 체험 없는 허구의 연극은 아닙니까? 남들에게 전해 들은 정도의 예수님에 만족해 하면서 공동체에 섞여 그저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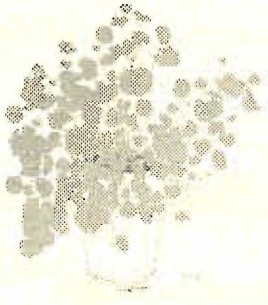
현대인들은 과학기술로써 습득한 정보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 특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으려 합니다. 사실 그런 것에 관심을 갖기에는 너무 바쁩니다. 천억 곱하기 천억 개의 별들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것에 대해 경외심을 갖기보다는, 과학기술을 통해 알게 된 것들에 대한 승리감에 도취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서 유한한 생명을 살다가는 존재일지라도, 모든 것을 만들어 내고 지탱하는 것, 즉 보이지 않는 그 무엇과 그 무한한 생명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토마스 사도는 하느님의 존재와 그 생명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 손발의 못 구멍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영원무궁한 하느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느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토마스 사도에게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가 의심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의심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경제전쟁의 틈바구니에서 물질주의의 비정함과 허무함을 맛보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그 물질 위주의 삶을 진지하게 의심해 보아야 할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신화처럼 이만 달러 소득시대를 열었다지만 아픔도 많이 따랐습니다. 처절한 경쟁, 빈익빈 부익부, 불신 풍조, 전인교육의 상실, 가정의 위기, 환경오염 등등… 우리가 얻어 누리는 편리함의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물질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편리함보다는 사랑입니다. 지식정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겸손, 희생, 인내, 용서, 온유, 성실 등등… 이제는 보이는 이익을 위해 보이는 물질에만 집착할 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위해 보이지 않는 사랑을 행하며 살 때가 아닐까요?

◆고찬근 루카 신부 / 서울대교구 성소국장

지천에 널린 행복



절망은 늘 예고가 없고 슬픔은 갑자기 나타나 피할 틈 없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무리 숨어도 슬픔과 절망은 기막히게 우릴 찾아냅니다.

그런가 하면 행복은 절대 먼저 찾아오는 법이 없지만 찾는 사람에겐 기꺼이 잡혀주곤 합니다.

따뜻한 옷, 눈부신 햇살, 봄꽃, 방금 먹은 칼국수, 커피 한 잔…… 먼저 발견한 사람의 것입니다.

◆글·그림 : 이영 아녜스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은지 릴리안	김숙희 유소사세실리아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남성철 베네딕도	박희자 마리아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진수 스테파노	이상철 스테파노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박혜경 레나타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1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하느님의 자비 주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대희년인 지난 2000년 부활 제2주일에 폴란드 출신의 파우스티나 수녀의 시성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황은 하느님의 자비를 기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2001년부터 해마다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의 자비에 감사드리고자하는 것입니다. - 매일미사 중에서 -

◈ **제3회 백삼위 본당 구역대항 친선 탁구대회**

- 일시 : 예선전-5월6일(주일), 13일(주일)
  결승전-5월20일(주일) 본당 체육대회날
- 장소 : 친교장
- 경기방법 : 구역별 리그전-- 단식, 복식, 혼합복식
- 참가구역 : 토런스 동, 서, 남, 북, 하버/카슨, PV 구역
- 선수구성 : 남녀 5명(여성 한분이상 꼭 참가)
- 준비물 : 구역별 탁구공과 탁구채
- 선수명단 제출 : 각 구역장이 4월29일(주일)까지 제출
- 문의 : 김용 스테파노 체육분과장
  ☎(310)926-2248

*** 성 프란치스코 성당과 친선탁구대회**

- 일시 : 4월29일(주일) 오후 2시
- 장소 : 성 프란치스코 성당
- 참가인원 : 남자10명, 여자 6명, 신부님, 수녀님
- 교우들의 많은 응원 바랍니다.

◈ **본당 M.E. 셰어링(Sharing)**

- 일시 : 4월21일(토) 오후 6시
- 장소 : 현석주 아오스딩 & 현영화 베로니카 부부 댁
- 문의 : 정동호 하상바오로 & 병옥 율리아 대표부부
  ☎(310)780-9055

◈ **본당 웹사이트 www.103skcc.org 새롭게 단장**

올해 부활절을 맞이하여 백삼위 한인성당의 기존 사이트가 새롭게 단장하고 교우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불편했던 사항들을 수정 보완하여 모든 교우들이 손쉽게 우리 백삼위 홈페이지에 참여하여 함께 꾸며 갈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방문과 관심을 바랍니다.

- 문의 : 홍보분과 103skcc@gmail.com
- 담당자 : 안재만 다니엘 ☎(310)972-0239

◈ **성당관련 사진을 CD에 담아드리겠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성당내 기념사진 및 신심활동 사진은 백삼위 웹사이트(www.103skcc.org)와 Flicker(http://www.flicker.com/photos/52248131@N06)에서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원하시는 분은 성당 사무실에 비치된 사진 신청함에 이름(+ 행사)을 넣어주십시오.

- 신청기간 : 5월5일까지
- 문의 : 홍보분과 이민상 요한 ☎(213)709-4400
  분과장 현석주 아오스딩 ☎(310)594-9472

◈ **남가주 M.E. 소식**

*** 30주년기념 골프 한마당**

- 일시 : 5월8일(화) 오후 1시
- 장소 : 웨스트리지 골프클럽, 라하브라
- 경기방법 : 샷건 플레이
- 대상 : ME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 참가비 : $100(점심과 저녁식사, 푸짐한 상품)
- 신청 : 본당 ME대표부부, 골프회장

*** 제69차 첫 주말강습**

- 일시 : 6월15일(금)~17일(주일)
- 장소 : Poverello of Assisi 피정센터(샌퍼난도밸리)
- 신청 : 본당 ME 대표부부 ☎(310)780-9055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4월15일(주일) : PV 3/4반(배추된장국 $3)
  * 주일학교(8학년 김치콩나물밥)
- 4월22일(주일) : 토런스 동1반(카레라이스 $3)
  *주일학교(7학년 부대찌개)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김광자 김기정 김대우 김양금 김옥보 김일선 김준호 김철민 모은기 문항업 민순선 박광자 박봉성 박윰진 배기엽 송기철 송재훈 송준규 신대식 유희연 윤석구 이경용 이상석 이효세 임분필 장영우 전시웅 정광미 정열모 주대종 주용범 최수현 최의수 한창주 홍선자 **합계 : $4,220**
성전헌금	김광자 김기정 김대우 김양금 김옥보 김준호 김철민 모은기 문항업 민순선 박광자 박봉성 송기철 신대식 유희연 이경용 이상석 이효세 장영우 정열모 주대종 주용범 최의수 한창주 **합계 : $3,550**

미사헌금 : $5,833(부활성야,학생미사,대미사)
사순애긍봉헌 : $9,498 예루살렘성지보존 헌금 : $1,275

감사헌금 : 안연숙
주보광고 후원 : $250

공지사항

~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

◈ **견진교리반 교육 LA주교좌성당 방문 및 미사 참례**
- 일시 : 오늘주일(15일) 오전 8시30분~오후 2시
- 대상 : 주일학교 10학년 견진교리반
- 미사 : 오전 10시 주교좌성당(주일미사헌금 및 $10 지참 : 점심)
- 문의 : 빈센트 신 견진담당교사 ☎(213)500-9448

◈ **첫영성체 교리교육 실시**
- 시간 : 5월20일까지 매주일 오전 10시30분~11시30분
- 장소 : 신부님 집무실(성전입구)
- 교사 : 김정심 크리스티나
- 문의 : 이진원 루시아 교무주임 (310)780-8895

◈ **청년 견진성사 일정**
- 일시 : 5월26일(토) 오전 10시
- 리허설 : 5월18일(금) 오후 7시30분
- Reflection : 5월25일(금) 오후 7시
- 장소 : 성 마가렛 메리 본당
- 대상 : 10학년
- 신청마감 : 4월8일(주일)
- 등록비 : $30(점심제공)
- 문의 : 빈센트 신 견진담당 교사 ☎(424)903-6637

◈ **LA한국교육원 주최 한국학교 교사연수**
- 일시 : 4월10일~5월3일 매주 화, 목 오후 7시~9시
- 장소 : 백삼위 한인성당
- 대상 : 한국학교 한국어교사 및 교사 지원자
- 문의 : 김본경 율리아 ☎(310)713-2669

남가주소식

◈ **성골롬반 청소년선교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 일시 : 4월21일(토) 오전 11시
- 장소 : 로열비스타 골프코스(20055 E. Colima Rd. Walnut)
- 참가비 : $100 * 문의 : 최용훈 신부 ☎(323)388-7737

◈ **남가주 제25차 성령안의 생활세미나**
- 일시 : 5월10일(목)~13일(주일) 3박4일, 드폴 피정센터
- 강사 : 정광호 도미니꼬 신부(보스턴 한인천주교회 주임)
- 참가비 : $150
- 문의 : 각본당 성령기도회장 및 봉사회총무☎(213)435-7570

◈ **송봉모 토마스 신부의 성경대학 2학기 CD 판매 안내**
- 내용 : 가톨릭 예수회 성경대학 2학기 과정 강의내용 수록 공관복음의 학문적, 영성적 읽기- 예수님을 잘 따르기위하여
- 금액 : 1세트당 $20
- 문의 : 성 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323)731-4433 고영희 데레사 ☎(213)249-3603

소공동체 4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차 장	박은해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율리아나 920-5153	유현자 안나 320-3697 4/20(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유선식 필립보 213-718-9262* *4/14(토) 오후 6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녜스 989-0366	*박인식 토마스 953-9597* *4/15(주일) 오후 5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박상원 야고보 370-8707* *4/14(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13-7779	이기숙 엘리사벳 650-1515 4/19(목)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최경숙 수산나 320-0855 4/20(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희자 마리아 634-6923* *4/12(목) 오전 10시30분*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이남현 막시모 213-272-3598 4/21(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오세원 아타나시오 327-8035 4/21/(토) 오후 6시30분, 강당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7871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박진수 스테파노 808-5005* *4/14(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4/13(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안민수 베드로 544-8908* *4/14(토)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김다니엘 892-1213* *4/13(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도영옥 수산나 971-8866* *4/10(화) 오전 10시30분*

이번주 단체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다음주 단체모임

4월 사목회	오후 1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사람 한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천에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올해 제32회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맞이하여 장애인 여러분과 그 가족들, 장애인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부활의 기쁨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어떠한 조건에도 상관없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존재임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보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보다 탐욕과 불신, 이기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늘어나 폭력, 자살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증가되고 있는 건 아닌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자연재해와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인보다 후천적인 사고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90%)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것도 통계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2010년 고용노동부 장애인 통계)

이러한 재해나 사고 앞에서 인간은 그 어느 때보다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며 그 누구도 후천적 장애인이 될 가능성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후천적인 장애로 인한 이웃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자 우리의 고통이므로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역시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봉헌하며 겸손과 회개를 통해 고통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수난을 기념하는 사순시기를 거쳐 부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시기는 깊은 회개와 자선을 실천하면서 부활의 은총과 기쁨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자 신앙의 절정으로 향하는 희망의 시간입니다. 인간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받아들이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 들이신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뜻임을 알기에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받아 들이신 예수님의 순명을 닮아가는 참으로 고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장애를 가진 모든 분들이 고통과 순명의 사순시기 후에 맞이하는 부활의 은총과 기쁨은 가장 값지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고통을 사랑으로 나누고 함께 해온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예수님 부활의 은총은 더더욱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자 서로 한 몸인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의 장애와 아픔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 사랑하고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으로 전하는데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교구장 대리 김용태 신부

☞ 기도가 크나요? 미사가 크나요? 제가 다니는 본당 신부님은 "기도가 더 크다"고 하시면서 계속 기도하면 언젠가는 은혜받는다고 말씀하시던데 정말입니까?

요즘 들어, 예리한 질문들이 많아서 답을 적는 일이 한결 조심스럽습니다. 깨어있는 신자들의 모습이야말로 저희 사제들을 바짝 긴장시켜 더 성숙한 삶을 꾸리게 한다는 걸 절감합니다. 신자분들의 깊은 영성을 통해서 사제를 키우고 가꾸시는 주님의 방법에 찬미 드릴 뿐입니다.

누누이 여러번 강조했듯이 미사는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거룩하고 귀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터전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큰 기적이 미사입니다. 미사에서는 예수님의 처절한 희생이 제물로 봉헌되며 실시간으로 하느님의 자비가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천상의 찬미와 온 땅의 흠숭이 하나로 일치되는 감격의 시간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하는 행위만큼 더 귀하고 완벽한 기도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부님께서는 별 준비 없이 건성으로 미사에 참례하는 행위가 그분께 무엄하다는 점을 일깨워주신 것이라 싶습니다. 마음의 준비 없이 참례한다면 놀라운 은총을 놓칠 수있다는 안타까움을 표하신 것이라 짐작합니다. 미사의 놀라운 은총과 평화를 체험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그분을 향해"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요한 4, 24)하는 기쁨으로 화답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도움말 : 장재봉 신부 /
부산교구 활천성당 주임

알렐루야, 알렐루야 ♬♬♬♬♬♬
부활을 축하드립니다.